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⑥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선광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 조계사에서 혜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3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사 총무국장, 동화사 총무국장, 호압사·안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제16·17·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1월 제31대 동화사 주지에 취임했다.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수행공동체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격랑을 지나 새로운 항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총림 해제라는 큰 변곡점을 겪은 뒤, 교구본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호국불교 위상 정립 원년' 선포, 사명 대사 체험관 준공,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승격 추진, 승시(僧市)의 현대화 등 주요 현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동화사의 현재를 듣기 위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2월 23일 주지 선광 스님을 만났다.

Q 취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셨는데 소회가 궁금합니다.

교구장은 한 지역 불교 행정을 책임지고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막상 소임을 맡아보니 총림 해제와 교구본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얽힌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어둡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화사 사부대중과 함께라면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열어 갈 자신이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압도적 지지는 개인에 대한 신임이라기보다 '변화와 화합'을 요구하는 대중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은 동화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깨는 무겁지만, 함께 가면 해낼 수 있습니다.

Q 교구본사로서 동화사의 정체성과 역할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총림 해제는 분명 아픔이었지만 이를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행을 근간으로 하되, 교구본사 본연의 기능인 전법과 교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권위적인 구조보다는 소통을, 형식보다는 실질적 포교를 우선해 대구·경북 불교의 구심점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개혁은 무조건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소임자 스님들과 뜻을 모아 함께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Q 승려 복지, 투명 경영, 교구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삼보정재의 투명한 운영은 공약 이전에 상식입니다. 보시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보에 회향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사는 법계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주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복지 체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본·말사가 상생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사와 말사는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호혜적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본사가 우월적 지위로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Q 취임 후 특히 '화합하는 수행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흐트러짐 없이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신도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저는 매월 신중기도와 재일기도를 직접 집전하며 신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동화사는 20년 넘게 양력 초하루 법회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양식을 고려한 전통입니다. 매달 양력 초하루부터 3일간 '가정의 안녕을 위한 신중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음력 초하루 기도도 병행해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강경〉 독경과 다라니 기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호국불교 사업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동화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 대사가 영남 승군을 이끌었던 호국의 총본영입니다. 봉서루에 걸린 '영남치영아문(嶺南緇營牙門)' 현판은

총림 해제 후 격랑…'변화' 염원 모여
직접 기도 집전…화합하는 수행공동체
삼보정재 투명 운영·본말사 소통 강화
'호국불교 위상 정립' 수륙재 정례화
위로와 쉼의 '열린 공간' 시민과 함께

승군 지휘부가 머물던 관아의 상징으로, 동화사의 위상을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올해를 '호국불교 위상 정립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명 대사를 비롯한 무명 승병의 넋을 기리는 호국영령 수륙재를 정례화하고, 봉서루와 관련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 운문사 등 호국 사찰을 연결하는 '호국 테마 탐방로'를 구축해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동화사는 호국 도량인 동시에 약사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과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자비, 이 두 축을 함께 세워 가겠습니다.

Q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의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축제인 '승시'를 비롯해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 · 계승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통일신라 후기인 9세 중엽 조성된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보로 승격된다면 동화사의 위상은 물론 지역 불교문화 진흥에도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승시는 불교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승시를 단순한 장터를 넘어 스님들의 삶과 불교의 역사, 민중과 함께한 발자취를 보여 주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사명대사체험관, 개방형 수장고 등과 연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관람 환경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Q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3월 준공 예정인 사명대사체험관을 중심으로 문화강좌와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동화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및 유관 기관과 협업해 축제를 열고 상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동화사를 닫힌 수행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위로와 쉼을 얻는 도량으로 가꿔가겠습니다.

Q 출가자 감소와 신도 고령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출가자 감소는 저출생과 사회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소하고 겸손하게 수행의 본류를 지키는 것,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해답입니다.

물질만능과 세대 갈등 속에서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시대의 문제를 녹여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불교가 존재하는 가치이고 의미일 것입니다.

Q 대구 · 경북 지역 포교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입니다. 사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해야 합니다.

동화사가 자리한 팔공산은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이에 걸맞게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한편, 불교문화가 시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생활 불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 대구 보현사를 중심으로 지역포교 거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구·경북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총림 해제 이후 동화사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동화사를 반듯한 수행공동체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씩 변화해 나간다면 염려와 걱정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불자들이 동화사를 찾을 때 기쁨과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수행과 자비가 살아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습니다. 팔공산 자락을 넘어 그 자비와 지혜가 시민과 국민의 가슴에 닿도록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동화사의 걸음에 따뜻한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과 현대불교신문 한명우 대표이사가 2월 23일 동화사에서 대담하고 있다.



2월 12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율학승가대학원 및 승가대학 졸업식.



동화사는 앞으로 역대 조사 다례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2월 14일 봉행한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당 보화 대종사의 열반 69주기 다례재 모습.



동화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식'을 열고 불자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법석을 마련했다.



팔공산 동화사가 새롭게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봉행된 '국태민안 호국불교를 위한 유주무주고혼 및 애민영가 수륙대재 대설판'.